

家族形態에 따른 父母와 子女의 心理的 特性

Ⅰ. 問題提起 및 目的
Ⅱ. 研究方法
Ⅲ. 研究結果
Ⅳ. 結 論

Ⅰ. 問題提起 및 目的

最近에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새로운 人口推計 結果에 의하면 당초 第6次 5個年 計劃에서 目標로 설정했던 2023年보다 3년이 빠른 2020年에 人口 增加率 0퍼센트로 약 5,000만명 수준에서 人口 증가가 정지되리라고 한다.¹⁾ 따라서 家族計劃事業이나 人口調節政策을 위한 對人 弘報도 종전의 量的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人間 삶의 質的 측면을 강조하는 方向으로의 모색이 요구된다. 生活水準과 所得水準이 높아짐에 따라서 단순히 經濟的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나 母性健康을 위하여 子女 出産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설득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단지 經濟가 아닌 心理的 측면에서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人口增加速度가 줄어들고 家族規模가 적어짐에 따라서 家族生活 전반에 變化가 올 것이란 점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家族은 가장 기본적인 人間의 社會單位로서 普遍性을 갖는데, 家族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學者에 따라서 달라 「머독」(Murdock)은 核家族의 普遍性을 강조하는 반면에 최재석은 법률적 한계와 이를 넘어선 일상생활에서의 실질적 관계와를 區分한다.²⁾ 그러나 家族을 어떻게 규정하던간에 그 안에서의 가장 基本的인 관계는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이며, 社會化 觀點에서 볼때 부모-자녀의 관계는 子女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責任研究員.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人口동태 현황 및 신인구추계 결과, 1988. 11, mimeo, p.8.

2)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5, pp. 3~86.

부모의 측면에서 볼때 부모-자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부모의 子女養育態度이다.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서 心理的 相互作用이라 하겠다. 이같은 態度는 여러 학자들이 개념적으로 정리,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쉐퍼」(Schaefer)가 개발한 온정-거부(Warmth-Rejection), 자율-통제(Free-Control) 次元, 「베커」(Becker)의 온정-적대, 허용-제한 次元, 「발드윈」(Baldwin)의 민주, 전제, 익애, 거부의 4類型 등이 있다.³⁾ 이와같은 子女養育態度는 아동발달 분야에서 독립변인으로서 子女의 공격성, 사회성, 자아개념, 불안 등과 같은 퍼스낼리티 특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많이 연구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一般化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따뜻하고 허용적 태도를 취하면 그 자녀는 독립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의적이지만 공격성 등 외향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한다.⁴⁾

그러면 이같은 子女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는 부모의 個人的 特性도 관계가 있으며 以外에 부모를 둘러싼 社會·經濟的 諸要因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家族과 관련해서는 家族形態, 家族크기, 구성 등이 상관성을 보인다. 「올센」(Olsen)은 타이완연구를 통해서 擴大家族의 부모가 子女의 自立과 관련된 태도가 核家族에 비해 약하다고 한다. 특히 할머니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가 子女에 대한 부담(Cost)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뜻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람버트」(Lambert)의 交換理論(Exchange Theory)으로 설명하려 하였다.⁵⁾ 한편 「키드웰」(Kidwell)은 子女數와 관련하여 子女數가 많으면 어머니의 子女養育이 강제성을 띠게 되고 合理性과 자녀에 대한 支持 정도는 떨어진다고 보고 단순한 자녀수 보다는 터울 개념을 포함한 형제자매 밀도(Sibling density)가 더 의미있는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자녀수가 동일하면 터울이 길어짐에 따라 자녀에 대한 강제성은 약해진다고 하였다.⁶⁾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양육태도는 가족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을 갖기므로 자녀의 성격형성에 家族形態나 크기가 결국 영

3) 오성심, 이종승,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오트, 제11권 1호, 행동과학연구소, 1982, pp. 1~3.

4) Steven L. Nock, *Sociology of the Family*, Prentice Hall Inc N.J, 1987, pp. 236~238.

5) Nancy J. Olsen, “Family Structure and Independence Training in a Taiwanese Vill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August 1973, pp. 512~519.

6) J. S Kidwell, “No. of Sibling, Sibling Spacing, Sex and Birth Order: Their Effects on Perceived Parental Adolescent Relationship”, *J. of Marriage and Family*, Vol. 43, No. 2, May 1981, pp. 315~332.

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보사드」(Bossard)는 大家族에서 子女에게 순종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小家族에서는 성취감과 개성을 존중한다고 하였는데, 「로젠」(Rosen)은 이것을 바탕으로 자녀의 성취감과 家族形態를 바로 연결시켜서 小家族에서 자란 자녀가 강한 성취성 동기를 갖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⁷⁾

한편 우리나라 研究로는 부산 동아대학교 연구팀이 大學校 1學年 學生 440여명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에 관한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성장과정시의 家族背景과 성격간의 관계를 分析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특히 아들의 경우는 형제 자매수가 많은 경우에 성취지향적 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감, 정서적 안정 및 책임감은 부정적 관계를 보여서 앞의 「로젠」(Rosen)의 연구와는 相異하였다.

家族의 形態나 크기 뿐만 아니라 子女의 出生順位나 형제자매간의 터울도 子女의 성격과 相關性을 보인다. 「파우트」(Pfouts)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아이가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한 반면 의존적이라면 둘째, 셋째 아이는 사회성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할 뿐 아니라 독립적이고 매사를 쉽게 처리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터울이 좁을수록 자녀에게는 리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하였다.⁹⁾

이렇게 볼 때 家族形態나 크기 및 子女出生順位, 터울 등이 자녀의 心理的 상태와 관계가 있는데 그 연계로 작용하는 것이 부모의 子女 기르는 方式 및 態度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家族形態, 크기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와의 相關關係를 파악코저 하며 아울러 子女의 社會心理的 特性과의 相關性을 알아봄으로서 家族形態, 家族크기, 형제자매간의 터울, 부모의 子女에의 養育態度 및 子女의 性格特性간의 相互 相關性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나아가서 家族의 精神的 心理的 安寧이라는 시각에서 出產調節이 갖는 의미를 재음미 하고자 한다.

7) B. C. Rosen, "Family Structure and Achievement Motiv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August 1961, pp. 574~584.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3 재인용, pp. 303~304.

8) 崔 淳, 薛光石, 沈貞宅, "가족배경이 子女의 性格形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 韓國人口學會誌, 제7권 제1호, 1984, pp. 78~123.

9) J. H. Pfouts, "Birth Order, Age-Spacing, I.Q Differences and Family Relations", *J. of Marriage and Family*, Vol. 42, No. 3, August 1980, pp. 517~531.

II. 研究方法

1. 研究資料

本 分析에 사용된 자료는 1988年 9月 서울시내의 한 국민학교 5학년 1個班과 6學年 2個班 學生 및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국민학교 학생은 學校에서 조사표에 기입케하였으며 그 어머니에 대한 자료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 회수하였다. 유효자료는 118부였다. 調查對象 學生과 어머니의 諸特性은 <表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應答者의 一般的 特性 百分率 分布

Characteristics	%	Characteristics	%
Children's School Age		Mothers' Educational Level	
5th Grade	35.2	Primary Scho.	19.7
6th Grade	64.8	Middle Scho.	29.5
Children's Sex		High Scho.	37.7
Male	50.7	College	13.1
Female	49.3	Families' Income	
Mothers' Age		~29 Thousand Won	12.9
30~35	23.0	30~39 Thousand Won	22.6
36~40	50.8	40~49 Thousand Won	22.6
41~45	26.2	50~59 Thousand Won	20.9
Total	100.0(N=118)	60+ Thousand Won	20.9
		Total	100.0(N=118)

2. 關聯變數

1) 家族의 形態的 特性

① 子女數: 부모에게는 子女數이며 子女에게는 형제자매수인데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3名 以上을 한데 묶었다. 家族規模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하였다.

② 家族形態: 核家族이나 아니냐로 區分하였다.

③ 出生順位: 형제자매 중에서 응답자의 순위가 어떠한가를 조사하였는데 역시 3번째 이상은 한데 묶었다.

④ 순위 및 손아래 형제자매 터울: 순위 또는 손아래에 누가 있는가, 있다면 터울이 2年以上인가, 그 미만인가로 區分하였다. 그러나 순위와 손아래를 한데 묶어 하나의 변수로 처리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별개의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調査對象者數의 제한성 때문이었다.

2) 家族의 心理的 特性

① 어머니의 子女養育 관련 태도: 여러가지 분류 중에서 「쉐퍼」(Schaefer)의 温情-拒否, 自律-統制의 次元을 이용하였는데 質問은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이 次元을 우리 실험에 맞게 개발한 설문¹⁰⁾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② 子女의 自我尊重感(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성격의 증추를 이루는 自我概念의 하나로서 行爲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아존중감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아동은 사회경제적 환경보다는 심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自我尊重感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여기서는 자녀 자신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로젠버그」(Rosenberg)의 설문¹¹⁾이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그 일부를 사용하였다.

③ 子女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評價

④ 子女의 學校生活 만족도

3. 分析方法

調査結果를 記述的(Description) 次元에서 제시하였다. 調査對象者數가 많지 않기 때문에 統計變數를 複數로 두지 않고 單一 變數에 따른 差異만을 단순 기술하였다.

10) 오성심, 이종승, 같은책.

11) M. Rosenberg, "Parental Interest and Children's Self-Conceptions", *Sociometry*, Vol. 26, 1963, pp. 35~49.

朴春心,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4권1호, 1976. 3, pp. 97~115.

III. 研究結果

1. 家族形態 및 規模와 母의 子女關聯 態度

부모의 子女關聯 態度는 「쉐퍼」(Schaefer)의 분류를 기준으로 온정-거부, 자율-통제로 나누어 각기 5개씩 모두 10개의 설문을 사용하여 1~4점의 점수를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5개의 설문중 3개는 긍정적 문구로 온정이나 자율을, 2개는 부정적 문구를

Table 2. Percent Distribution of Women's Warmth-Rejection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by No. of Children and Family Type

子女數와 家族形態別 母의 자녀에 대한 溫情-拒否 態度 百分率 分布

Warmth-Rejection	No. of Children			Family Type		Total
	1	2	3+	Nuclear	Others	
Permit with Pleasure if Children Want to Bring Their Friends Home						
Yes	88.9	72.0	69.4	75.6	64.3	72.9
No	11.1	28.0	30.4	24.4	35.7	27.1
Enjoy Play or Game with Children						
Yes	66.7	56.0	56.5	57.8	50.0	55.9
No	33.3	44.0	43.5	42.2	50.0	44.1
Praise Children Frequently						
Yes	66.7	76.0	78.3	73.3	78.6	74.6
No	33.3	24.0	21.7	26.4	21.4	25.4
Do not Believe Children's Saying						
Yes	12.2	10.0	14.3	13.3	14.2	13.6
No	77.8	80.0	95.7	86.7	85.8	86.4
Frequently Feel Children Bothersome						
Yes	11.1	16.0	21.7	20.0	7.1	17.0
No	88.9	84.0	78.3	80.0	92.9	83.0
Total	100.0 (N=18)	100.0 (N=50)	100.0 (N=46)	100.0 (N=90)	100.0 (N=28)	100.0 (N=118)

사용하여 거부나 통제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表2〉는 먼저 温情-拒否 次元의 質問에 대한 응답을 子女數와 家族形態에 따라 區分한 것이다. 그런데 絕對數가 적기 때문에 방(Cell)의 수를 늘릴 경우 퍼센트가 별 의미가 없으므로 1~2와 3~4를 묶어서 2가지 應答으로만 구분하였다. 子女數에 따른 차이를 보면 子女數가 적을수록 친구를 집에 데려오게 하거나, 함께 놀이나 게임을 즐긴다는 比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칭찬을 자주한다는 문항에서는 오히려 子女數가 많을수록 그렇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否定的인 문구를 사용한 拒否를 나타낸 질문의 경우 子女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는에서는 子女數에 따라 應答에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子女가 귀찮을 때가 자주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子女數가 1名은 11퍼센트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2名은 16.0퍼센트, 3名 以上은 21.7퍼센트가 그렇다는 反應을 보였다. 한편 家族形態別로 보면 온정을 나타내는 3가지 질문 중에 子女가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하면 기꺼이 승락한다거나 자녀와 함께 게임이나 놀이를 즐긴다는에서는 其他家族보다 核家族 어머니의 그렇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그러나 칭찬을 자주 한다는 질문은 核家族보다 其他家族의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拒否를 나타내는 질문에서 子女의 말을 잘 믿지 않는다는 질문은 家族形態에 따라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자녀가 귀찮을 때가 자주 있다는 응답은 核家族의 어머니가 其他家族의 어머니에 비해 훨씬 그렇다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核家族에 代理母 또는 자녀를 父母 대신 보살필 수 있는 人力이 없음에 따라 어머니가 느끼는 心理的 부담이라 사료된다.

한편 〈表 3〉은 자율-통제의 次元에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가 子女數 및 家族形態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보여준다. 먼저 自律을 나타내는 “子女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한다”, “자녀가 자신에 관련된 일은 스스로 결정토록 한다”, “子女의 말이나 행동에 별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세가지 問項이 모두 한 자녀인 家庭이 자녀수가 둘, 셋 以上인 경우에 비해 그렇다는 比率이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子女數가 2名과 3名 以上은 별 차이가 없었다. 統制의 경우는 일정한 傾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子女에게 못하게 하는 일이 많다에는 子女數가 셋 以上인 경우가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자녀, 두자녀의 순서였으며, 자녀에게 부모가 하라는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녀수가 세명 以上에서 가장 낮고, 두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명이 그 중간 정도였다. 家族形態에 따라서는 許容이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Women's Free-Control Attitude toward Their Children by No. of Children and Family Type

子女數와 家族形態別 母의 子女에 대한 自律-統制 態度 百分率 分布

Free-Control	No. of Children			Family Type		Total
	1	2	3+	Nuclear	Others	
Permit all Children Want to Do						
Yes	44.5	32.0	34.8	35.6	28.6	33.9
No	55.5	68.0	65.2	64.4	71.4	66.1
Let Children Decide what Related to Themselves						
Yes	66.7	56.0	56.6	62.8	36.7	55.9
No	33.3	44.0	43.4	37.8	63.3	44.1
Do not Meddle Children's Wording or Behaviors						
Yes	22.3	16.0	17.4	15.5	21.4	17.0
No	77.7	84.0	82.6	84.5	78.6	83.0
Prohibit Children from Doing Many Things						
Yes	55.6	48.0	69.0	60.0	50.0	57.6
No	44.3	52.0	31.0	40.0	50.0	42.4
Want Children do All that Parent Ask Do						
Yes	66.7	74.0	60.8	68.9	78.5	71.1
No	33.3	26.0	39.2	31.1	21.5	28.9
Total	100.0 (N=18)	100.0 (N=50)	100.0 (N=46)	100.0 (N=90)	100.0 (N=28)	100.0 (N=108)

나 決定에서의 自律을 核家族이 其他家族에 비해 뚜렷이 높았으며 말이나 행동에 대한 간섭은 오히려 其他家族이 높게 나타나 예의와 관련된 統制가 其他家族등에서 보다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統制性 問項에서는 核家族이 其他家族에 비해서 子女에게 못하게 하는 일은 많지만 부모가 원하는대로 모두 다 하기를 원한다는 比率은 낮음으로서 어머니의 統制 性格이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같은 子女養育 關聯 態度는 子女數나 家族形態 以外の 요인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表 4>에서 諸特性과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여기서는 각 문항의 응답

Table 4. Simple Correlation between Families' Characteristics and Mothers' Attitude

家族 特性과 母의 자녀양육태도 相關係數

Mothers' Attitude	Families' Characteristics		
	Mothers' Age	Mothers' Education	Families' Income
Warmth	-.01	-.04	-.15
Rejection	-.21**	+.03	+.18*
Free	+.36**	-.03	+.04
Control	+.00	-.19*	-.21*

*P<.05

**P<.01

인 1~4점을 그대로 합산하여 단순상관계수를 냈다. 어머니의 年齡은 연령이 많을수록 子女에 대한 拒否의 態度가 적고 自律을 주는 傾向은 뚜렷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教育水準은 統制를 나타내는 질문에서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아니라는 방향으로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관계는 統計的 有意性을 갖는다. 所得水準은 所得이 높을수록 子女에 대해 溫情의 態度보다는 拒否의 태도를 갖는 것으로 調査되었다. 그러나 통제 태도는 否의 相關性을 보여서 소득수준이 높으면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부모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子女가 귀찮을 경우는 많다는 태도를 갖는다고 하겠다.

2. 家族形態 및 規模와 子女의 社會心理的 態度

아동발달 측면에서 볼때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諸要因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아동 자신이 지니고 있는 特性도 여기에 반영된다고 하겠다. 아무런 인식도 없는 어린아이가 주위 환경과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自我와 社會에 대한 認識을 갖게 되는 과정에서 家族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일부인 家族의 구조적인 特性과도 相關性을 갖을 것으로 유추된다. 家族構造와 子女의 성격특성과의 사이에는 부모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 세 요인들이 相互 관련을 갖고 있음으로 이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社會心理的 態度로서는 먼저 自我概念의 일부인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주제로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역할수행의 만족도에 따라 개인이 가지는 평가적 태도로서 다양한 역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기술적(Descriptive)인 면을 말하는 自我개념(Self-Concept)과는 구별된다.

〈表 5〉는 형제자매수와 家族形態에 따른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당초

Table 5. Percent Distribution of Children's Self-Esteem by No. of Children and Family Type

子女數 및 家族形態別 子女의 自我尊重感 態度 百分率 分布

Self-Esteem	No. of Children			Family Type		Total
	1	2	3+	Nuclear	Others	
Generally Satisfy with Myself						
Agree	66.7	44.0	65.3	55.5	57.2	56.0
Disagree	33.3	56.0	34.7	44.5	42.8	44.0
Have many Merits						
Agree	55.6	62.5	52.2	57.7	61.5	58.6
Disagree	44.4	37.5	47.8	42.3	38.5	41.4
Can Everything as can Others do						
Agree	77.8	67.8	65.3	68.9	64.3	67.2
Disagree	22.2	32.0	34.7	31.1	35.7	32.8
Be Valuable as Others						
Agree	66.7	71.0	74.0	70.4	71.5	70.7
Disagree	33.3	29.0	26.0	29.6	28.5	29.3
Sometimes Think I am Useless						
Agree	77.8	72.0	52.2	62.2	71.5	64.5
Disagree	22.2	28.0	47.8	37.8	28.5	35.5
Have Nothing to be Proud of						
Agree	55.6	51.2	47.2	51.2	50.0	50.8
Disagree	44.4	48.8	52.8	48.8	50.0	49.2
Total	100.0 (N=18)	100.0 (N=50)	100.0 (N=46)	100.0 (N=90)	100.0 (N=28)	100.0 (N=118)

설문응답결과를 應答者數를 고려하여 찬성, 반대의 두 집단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형제자매수별로 보면 문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혼자보다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자아존중감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6개 문항 중에서 한개 문항이 U자를, 다른 한개 문항은 \cap 모양을 나타냈으며, 한 문항이 부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비해서 3가지 問項에서 형제자매수가 많을수록 自我尊重感이 높다는 모습이다. 한편 家族形態別로도 問項에 따라서 다른데 2개 문항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에 다른 두 문항에서는 核家族 子女가, 또다른 두 문항에서는 기타 家族의 子女가 비교적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즉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형제자매수 및 家族形態와의 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달리 거의 相關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 以外의 다른 要因이 作用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 出生順位, 손아래 및 손위 형제자매 터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表 6〉은 出生順位 및 터울에 따른 차이이다. 먼저 出生順位別로는 6개 질문 중에서 4가지 問項에서 出生順位가 높을수록 높은 自我尊重感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두 질문 즉 “자신에게 대체로 만족한다”에도 셋째 以上이 첫째 둘째보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은 나도 할수 있다”는 설문에는 둘째가 가장 높은 자긍심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첫째가 자아존중감에서 스스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부모가 맏자녀에 대해 생소한 경험과 태도임으로 그들을 취급함에 있어 염려와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反映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형제자매수 터울과 관련해서 손위 및 손아래로 나누어 터울이 2年 以上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는 表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손위 형제자매와의 터울 및 存在여부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質問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응답을 보였다. 그러나 손아래 형제자매와의 터울은 2년 미만이나 2년 이상이나 또는 막내이나와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6개 문항 중에서 “나에게는 별로 자랑할만한 점이 없다”는 문항을 제외한 5개 문항에서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터울이 2년 이상인 경우가 2년 미만인 경우에 비해 일관성 있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손아래 형제자매가 없는 막내의 경우에는 대체로 손위 형제가 없는 첫째 보다는 높은 자아존중을 나타냈으나 터울이 2年 以上 및 미만인 아동과의 비교에서는 어떤 경향을 찾기가 어려웠다. 즉

Table 6. Percent Distribution of Children's Self-Esteem by Birth Order and Sibling Space

出産順位와 터울別 子女의 自我尊重感 態度 百分率 分布

Self-Esteem	Birth Order			Elder Sibling			Younger Sibling		
	1	2	3+	Less than 2 Years 2 Years or More	2 Years or More	None	Less than 2 Years 2 Years or More	2 Years or More	None
Generally Satisfy with Myself									
Agree	55.2	47.4	62.7	53.4	60.0	55.2	44.3	60.0	61.3
Disagree	44.8	52.6	27.3	46.6	40.0	44.8	55.7	40.0	38.7
Have many Merits									
Agree	34.5	52.6	54.5	53.3	52.2	34.5	27.8	40.0	54.8
Disagree	65.5	47.4	45.5	46.7	47.8	65.5	72.2	60.0	45.2
Can Everything as Others can do									
Agree	65.6	78.9	54.5	73.3	66.6	65.6	62.2	70.0	64.5
Disagree	34.4	21.1	45.5	26.7	33.4	34.4	27.8	30.0	35.5
Be Valuable as Others									
Agree	65.5	72.2	81.8	86.6	64.3	65.5	62.2	70.0	70.0
Disagree	34.5	27.8	18.2	13.4	35.7	34.5	27.8	30.0	30.0
Sometimes think I'm Useless									
Agree	75.9	63.2	36.3	60.0	46.6	75.9	83.3	50.0	58.1
Disagree	24.1	36.8	63.7	40.0	53.4	24.1	16.7	50.0	41.9
Have Nothing to be Proud of									
Agree	53.6	50.0	45.5	40.0	57.2	53.6	38.9	77.8	50.0
Disagree	46.4	50.0	54.5	60.0	42.8	46.4	61.1	22.2	50.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58)	(N=38)	(N=22)	(N=30)	(N=30)	(N=58)	(N=38)	(N=20)	(N=61)

〈表 6〉에 나타난 아동의 출생순위, 순위 및 손아래 형제 유무 및 터울과 자긍심과의 관련성을 종합하면 첫째 아이보다는 순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자긍심이 높으며, 특히 손아래 형제자매가 2年 미만의 터울로 있을때는 自我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年 未滿의 터울로 두 아이를 가질 경우에

첫아이는 첫째로서 그리고 또 바쁜터울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家族構造와 부모의 양육태도를 볼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과 상관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본 조사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¹²⁾ 그러므로 첫아이를 바람직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도 중요하지만 터울을 길게 해서 동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Table 7. Percent Distribution of Children's response by Family pattern

家族形態에 따른 자녀의 心理的 態度 百分率 分布

Family Structure	My parent would be satisfied with me		I am satisfied with school life		Total
	Yes	No	Yes	No	
No. of Siblings					
1	66.0	34.0	100.0	0	100.0
2	68.0	32.0	79.2	20.8	100.0
3+	56.0	44.5	43.4	56.4	100.0
Family Type					
Nuclear	65.5	35.5	79.6	20.4	100.0
Others	57.2	42.8	71.4	28.6	100.0
Birth Order					
1	65.5	35.5	82.8	17.2	100.0
2	57.9	42.1	66.7	33.3	100.0
3+	63.7	36.3	81.8	18.2	100.0
Elder Sibling Space					
Less than 2 Years	66.0	44.0	61.8	38.2	100.0
2 Years or More	50.0	50.0	80.8	19.2	100.0
None	64.5	35.5	83.3	16.7	100.0
Younger Sibling Space					
Less than 2 Years	60.0	40.0	66.7	33.3	100.0
2 Years or More	50.0	50.0	78.6	21.4	100.0
None	65.0	35.0	82.8	17.2	100.0

12) 단순상관계수가 $-.01 \sim .06$ 사이였음.

子女의 社會心理의 상태를 알아 볼 수 있는 다른 설문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만족하는가에 대한 자녀의 인식 상태와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表 7>과 같다. 먼저 부모가 나에게 대해서 만족해 하실 것이라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反映하는데 表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형제자매수가 3名 以上보다는 1~2名이 그렇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核家族이 기타가족형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出生順位에 따라서는 둘째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터울에 있어서는 손아래 및 순위 형제자매가 2살 이상의 터울인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형제자매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其他家族보다는 核家族의 자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出生順位에 있어서는 둘째가 첫째나 셋째 以上에 비해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았으며, 터울 및 순위, 손아래 형제자매여부별로는 터울이 2年미만이 가장 낮고, 2年以上이 그 다음이며 첫째나 막내가 비슷하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結 論

앞의 결과를 중심으로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家族構造에 따른 어머니의 態度는 温情-拒否로 볼때, 子女數가 적을수록 温情的 態度가 강하고, 拒否는 약하며, 家族形態別로는 核家族이 전반적으로 温情的 태도도 강하지만 귀찮을 때가 많다는 拒否的 반응도 기타 形態의 家族에 비해 높았다. 自律·統制 次元에서는 子女數가 하나인 경우가 그 이상에 비해 自律的 태도가 높았으며 統制的 문구에서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많다는 문항에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낮았다. 한편 家族形態別로는 전체적으로 核家族이 子女에 대한 自律은 훨씬 높았으나 統制에서 말이나 행동에 대한 간섭이 특히 其他家族 등에서 높게 나타나 예의범절과 관련된 통제가 核家族에서 약함을 나타냈다.

子女의 自我尊重感과 子女數 및 家族形態와의 관계는 한자녀보다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 높게 나타났고 家族形態는 문항에 따라서 相反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出生順位別로는 出生順位가 높을수록 自我尊重感이 높아서 앞의 子女數別 차이와 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형제자매의 터울은 손아래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에 터울이 2年未滿이 2年以上에 비해 일관성 있게 낮은 自我尊重感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터울은 별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형제자매수가 1

~2名이 3名에 비해 만족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核家族이 기타 家族에 비해 훨씬 많았다. 學校生活에 대한 만족도도 형제자매수가 적고 核家族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子女數가 적고 核家族이면 부모의 子女關聯態度가 温情과 自律性을 강조하는 경향이며 子女는 부모에 대한 자신의 평가 기대와 학교생활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러나 自我尊重感은 이와는 좀 다르게 손아래 형제자매의 터울이 2年 以上이나 미만이나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자매수는 오히려 많을수록 높으며 出生順位는 첫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때 첫아이 또는 한 자녀를 둔 家族에서는 부모의 온정과 자율에 기초한 양육방식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보호나 관심으로 인해 自我에 대한 태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않을수 있으며 여기에 바쁜 터울로 아우를 갖게 되면 더욱 이런 경향은 강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도 동아대학교 연구팀의 결론¹³⁾과 같이 小家族, 小子女가족이 자녀의 성장과정에 好意的으로만 作用하며 그 결과가 人口 자질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出產子女數가 평균 1.7名이며 中位推計로는 2000년에도 이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란 점을 감안할때 단순히 小家族이나 적은 子女數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터울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出產양상이 바쁜터울로 특징지워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더욱이 한 자녀를 두는 家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는 量的調節 次元에서 진일보하여 人口의 質的 측면으로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父母-子女 관계에서도 한 자녀, 小家族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나친 자율, 방임, 과보호 등 단점을 보완해 주는 內容도 人口 關聯弘報의 일환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本 研究의 制限性을 제시하면, 應答者數가 많지 않아서 分析이 기술적(Description)차원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단지 변인과 변인간의 연결성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파악하였을 뿐이지 변인과 변인간의 관계에 작용하는 外生變數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13) 崔 淳, 薛光石, 沈貞宅, 같은논문, p. 119.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인구동태현황 및 신인구추계, 1988, Mimeo.
- 공세권 외, 한국가족구조의 변화,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
- 박춘심, “부모의 관심이 아동의 자아개념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14권 1호, 1976. 3, pp. 97~115.
- 오성심, 이종승,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연구노트, 제11권 1호, 행동과학연구소, 1982.
-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문사, 1983.
-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1985.
- 최 순, 설광석, 심정택, “가족배경이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7권 제1호, 1984.
- Kidwell, J.S., “No. of Sibling, Sibling Space, Sex and Birth Order: Their Effect on Perceived Parental-Adolescent Relationship”, *J. of Marriage and Family*, Vol.43, No.2, May 1981 pp. 315~332.
- Nock, S.L., *Sociology of the Family*, Prentice Hall Inc, N.J, 1987.
- Olson, N.J., “Family Structure and Independence Training in a Taiwanese Village”, *J. of Marriage and Family*, Vol.35, No.3, August 1973, pp. 512~519.
- Pfouts, J.H., “Birth Order, Age Spacing, IQ Differences and Family Relations”, *J. of Marriage and Family*, Vol.42, No.3, August 1981, pp. 517~531.
- Rosenberg, M., “Parental Interest and Children’s self Conceptions”, *Sociometry*, Vol.26, 1963, pp. 35~49.

Abstract

A Study on Family Pattern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Parent and Child

Moon-Hee Seo*, Moon-Sik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patterns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mother and child. As the population increase in Korea would be expected to stay at 50 million in 2020, the population policy need to be renewed and widen to consider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The data collection was made through prepared questionnaire. The respondents were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 primary school and their mothers. The total cases were 118.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No. of children and the family type related to mother's child rearing attitude. Mothers in nuclear family tended to be more warm and free than others toward their children. Small families' mother had more warm and free child rearing attitude. But regarding child's self-esteem family type showed no relationship and No. of siblings showed weak relationship. Child who has siblings tend to have strong self-esteem. Rather, the birth order and younger sibling spacing showed more relationship with self-esteem. Those who were first born and those who had younger sibling within two-year-interval had the weakest self-esteem among respondents.

Regarding the TFR is 1.7 and the one child family are increasing continuously, the qualitative aspects need to be strengthened in population control policy. Not only the size but also the patterns such as family type, birth order, spacing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population.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